A close-up of a sign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선교 활동 보고

청년 자원봉사자로서 섬김을 통한 신앙과 열정 탐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라온 줄리엣 오워와 매기 콜린스는 이제 아주 가까이에서 함께합니다. 그들은 뉴욕시의 작은 아파트를 다른 두 명의 청년들과 공유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공유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케냐 태생으로 가족이 텍사스 러벅에 정착한 줄리엣과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턴 세일럼 출신인 매기는 지난 여름 미국 전역과 전 세계 곳곳에서 신앙에 기반하여 봉사활동을 펼치는 범교회적 [청년 자원봉사자](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yav/)(YAV) 프로그램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학사 학위를 받고 현재 텍사스 공대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줄리엣은 "청년 자원 봉사자 프로그램은 저에게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여기[뉴욕]에 있으려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뭔가 다른 것을 원한다면 뭔가 다른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녀에게 적절한 시기에 딱 맞는 "뭔가 다른 것"이 청년 자원 봉사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에서 불의가 계속되게 만드는 구조를 변혁하고자 하는 줄리엣과 매기 같은 청년들은 미국장로교 [특별 헌금](https://specialofferings.pcusa.org/offering/pentecost/) 네 가지 중 하나인  [성령 강림절 특별 헌금](https://specialofferings.pcusa.org/)을 통해 부분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성령 강림절 특별 헌금은 청년 자원 봉사자 프로그램을 지원할 뿐 아니라, [미국장로교 청소년 수련회](https://presbyterianyouthtriennium.org/)와 전국적인 이니셔티브인  ["어린이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다"](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compassion-peace-justice/child/) 또한 지원합니다. 이렇게 나누어 지원되는 이 헌금의 특징은 40%를 개별교회들이 보유해서 젊은이들을 위한 자체 사역에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60%는  [미국장로교 선교국](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의 사역을 통해 젊은 세대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매기는 젊은이들이 미국과 전 세계에서 살아가며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열정과 믿음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YAV 프로그램에 매력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 특별 헌금이 25년 넘게 해 온 것입니다.

매기는 "미국장로교가 청년 자원 봉사자 프로그램에 제공하는 지원에 대해 매우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 특별 헌금에 기쁘게 참여해주세요.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진정으로 젊은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이 교회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줄리엣은 젊은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이에 동의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돕기 위해 아낌없이 기부해 주시고, 이곳 우리 지역 사회와 교회 곳곳에,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젊은이들을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보태면, 큰 힘이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줄리엣과 매기 그리고 전 세계에서 청년 자원 봉사자로 섬기는 모든 젊은이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젊은 세대가 성장하고, 배우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희가 당신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아멘**.